“대학생 열정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하겠다”

해인사,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 창립법회 봉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경당서 100여 대학생 동참해
혜일 스님 “진리 향한 지혜 얻길”
상월결사, 기금 1000만원 전달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과 참석자들이 창립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진주보건대학에 불교학생회가 창립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3월 23일 경내 보경당에서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 ‘반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해인사 부주지 학암 스님,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총무국장 향록 스님을 비롯해 반야 지도법사 적민 스님, 김훈희 지도교수, 김용진 국립경상대 지도교수, 해인사 소리길 합창단, 진주보건대학생과 대학생 전법 영남결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 ‘반야’는 지난해부터 해인사 대중스님들과 지도법사 적민 스님, 김훈희 지도교수와 함께 준비기간을 거쳤다. 불교학생회 홍보활동과 학생모집을 통해 27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정식 동아리로 등록 후 이날 창립법회를 맞았다.

진윤주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한국불교의 현실 앞에 사부대중의 마음은 무겁지만 대학생의 열정으로 희망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녹여내는 모범이 되고자 한다”면서 “오직 전법으로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 앞에 다가서고 수행정진하는 불제자들의 열정으로 세상을 비추겠다”고 서원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스님들 수행과 불교의 외형 확장에 힘쓰느라 정작 청년 불자들에 대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2년 안에 지역 학교 모두에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를 신행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며 “불교동아리 활동은 우리 생의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면서 성불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이날 창립한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 ‘반야’의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불교동아리방 운영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일감 스님은 “상월결사는 지난해 입적한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력과 노력으로 그동안 100여 곳의 불교학생회를 재창립했고, 20곳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 안에 약 200개의 불교학생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상월결사에서는 불교학생회의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국립경상대 지도교수도 축사를 통해 “학생들이 불교적 소양을 키워나가고 수행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임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대보살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립기념법회를 마친 학생들은 해인사 율원장 금강 스님을 전계사, 해인사 율감 종선 스님과 무착 스님을 인례사, 지만 스님과 적민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귀의계와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불자들 합창, 빛고을에 울려 퍼지다

조계종 호남본사주지협, 전국불교합창제 개최

3월 27일, 광주예술의전당서
각 지역 10개 합창단 참여



‘2024전국불교합창제’ 가 3월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빛고을 광주에 전국 불교인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조계종 호남본사주지협의회(회장 경우 스님, 선운사 주지)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정혜신),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채송화)가 주최한 ‘2024전국불교합창제’가 3월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5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합창제는 강원지회, 서울경기남지회, 제주지회, 충남북지회, 상월청년합창단과 상월비보이, 부산지회, 전북지회, 대전지회, 광주전남지회 등 각 지역 10개 합창단이 아름다운 불교음악을 선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의 수행과 전법, 이 두 가지는 불교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전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음악 포교”라며 “최근 한국불교는 ‘선명상’을 전국에 보급하고 K-명상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창 또한 선명상의 일환으로 전법에 최고의 방법이며, 자긍심을 갖고 사부대중에게 공유하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빛고을 영무장 농악단의 대북공연으로 시작한 합창제는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강원지회를 시작으로 10개 지회에서 마련한 2곡을 노래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상월청년합창단과 상월비보이팀이 힘 있는 노래와 춤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한 전국합창단들은 마지막으로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를 합창해 전법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포페스테라의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역사, 인물로 읽어내다

국립전주박물관 · 금산사
3월 22~23일 학술대회



김제 금산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한국사와 불교사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룬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가 김제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열렸다.〈사진〉

3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과 연계해 개최됐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주최하고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와 한국고대사탐구학회(회장 조범환)가 주관한 학술대회는 ‘인물로 보는 금산사’라는 주제로 오랜 세월 전북민의 곁에서 미륵신앙의 성지로 법등을 이어 온 금산사와 관련 인물들이 한국사와 불교사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룬 논문들이 발표됐다.

3월 22일에 진행되는 1부의 발표 주제는 △진표(眞表)의 점찰경에 관한 관점과 두 가지 계승(이병욱, 고려대) △금산사에서 법주사로, 점찰법의 확산과 영신(永深)(박미선, 명지대) △신라 하대 심지(心地)의 진표계 법상종 계승과 동화사 창건(임평섭, 서강대학교) 등 3건의 논문이 발표됐다. 23일 2부는 △금산사와 견훤(홍창우, 전남대) △고려 왕실과 혜덕왕사 소현(1038~1096)(김아네스, 한경대) 등 2건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 후에는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조범환 회장을 좌장으로 5개 주제의 발표에 대해 신선혜(호남대), 백미선(충남대), 옥나영(홍익대), 진정환(국립익산박물관), 김수연(이화여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금산사 스님들의 사상과 업적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 통찰의 기회를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산 정법사 수자타 아카데미 특별강좌 개강

수인 스님 ‘정화요리’ 특별강좌
10개월간 제철 채식요리 강의


강좌를 진행할 수인 스님은 “채식과 환경은 맞닿아 있다는 생각에 비건채식 강의와 메뉴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비건과정과 접목해 강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3월 28일 경내 수자타 공양간에서 정법사 문화강좌 ‘수인 스님과 함께하는 정화요리’ 채식 특별강좌 개강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특별강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현실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채식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정화요리전문가와 국가환경교육사로 알려진 수인 스님을 강사로 초청해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강의에서는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중심으로 강의당 3가지 요리 조리법을 선보인다.

개강식에서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 철학을 정법사 신도님들과 공유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잘 배워서 스님들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곡사, 취봉 스님 열반 22주기 추모다례

취봉장학금 전달식도…청소년 6명에 500만원

취봉 스님 열반 22주기를 맞아 생전 후학 교육에 힘쓰고 인재불사에 진력했던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취봉 스님 2주기 추모다례재 및 장학금 전달식’이 3월 24일 창원 불곡사 관음전에서 열렸다.〈사진〉



올해로 4회를 맞은 취봉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부산보건대 주가희, 수원 아주대 조하윤, 부산과학기술대 구동현, 창원 대암고 조예준, 창원 봉곡중 이정민, 창원 명곡여자중 문상화 학생 등 6명에게 총 500만원이 전달됐다.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은 “문중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도움과 나눔을 통해 이타적 보살정신을 실천하는 취봉장학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담문도회 취봉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회로서 나눔을 통해 행복과 즐거움, 괴로움을 함께 나누겠다”며 “학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마이산 탑사, 자비의 쌀 기부

자원봉사센터 통해 100가구에 1000kg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와 (사)붓다봉사단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을 선물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와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3월 26일 지역의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의 쌀 1000kg(10kg 100포대)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요섭)에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마이산 탑사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진안군 11개 읍면, 100가구에 전해졌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자비의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 마이산 탑사는 자비의 쌀 나눔, 연탄나눔, 김장김치나눔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참당암 3000일 지장참회기도 회향

용왕대재 함께 봉행…4000일 참회기도 입재도

고창 선운사 참당암(참당선원장 법만 스님)이 3월 24일 경내 대웅전 앞 야외법단에서 3000일 지장참회기도 회향 및 용왕대재를 봉행했다.〈사진〉 회향법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2015년 7월 5일 삼독과 과거 업장 소멸을 기원하며 입재한 참당암의 3000일 기도는 2018년에 1000일 기도를, 2021년 4월에 2000일 지장기도를 성만했다.

참당암 선원장 법만 스님은 “수행과 참회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깨달아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가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 진행됐다. 유나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은 “3000일 기도를 해본 뒤에야 비로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 모두가 참회할 일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3000일 지장참회기도를 회향한 사부대중들은 4000일 기도를 입재하고 지속적으로 참회기도를 이어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8회 차· 시· 락의 밤 개최

울산연주인의 상에 정희성 하모니카 연주자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이 3월 23일 경내 야외 특설무대에서 차와 시, 음악이 함께하는 ‘제8회 차시락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정관암 주지 대활 스님은 “문수산 자락에 자리 잡아 자연을 벗 삼아 지낸 지 15년의 세월이 지났다”며 “힘든 여건과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열게 된 조촐한 행사지만 즐거움이 가득한 힐링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울산연주인상 시상이 진행됐다. 올해 울산연주인상은 정희성 하모니카 연주자가 수상했다. 이어진 차· 시· 락의 밤 공연에는 경담문화 시낭송퍼포먼스, 울산 숟가락난타 공연, BTN불교TV중창단, 황보배 바이올린연주, 미스터트롯 가수 양지원이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주변에는 사진전시, 진달래 꽃길 걷기, 화전놀이, 떡메치기, 전통차맛보기. 주먹밥 식사 등이 열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봄기운을 만끽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